

# 항공산업 자력 생존 '불가'...정부 기간산업 지원책에 기대

기존 대책만으로는 '부족'...대한항공·아시아나도 '회청'

무보증 저리대출 확대, 지급보증지원·세금감면 업계서 요청

국내 항공산업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다. 사실상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매출 9000억원 이상의 고정비가 적자로 쌓이고 있다.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만 5조 3000억원을 넘는다. 항공업계에선 무담보 저리대출 확대와 정부의 채권 지급보증, 세금감면 지원을 호소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5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공항사용료·과징금 납부유예,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산업은행의 3000억원 금융지원 등 항공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장 항공기 운항 대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사용자 감면이나 유예는 큰 도움이 안된다. 3000억원의 긴급 유동성 지원도 대형항공사까지 포함할 경우 매우 부족한 규모라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업계의 위기 상황은 고용에

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달 초 업계 첫 정리해고에 나선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을 생산하는 하청업체가 근로자 940여명 중 340여명을 감원하는 등 코로나19의 여파가 고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저비용항사는 물론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와도 항공산업 중사자 규모만 84만명에 달한다. 항공 산업이 붕괴하면 실업대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에서도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3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간산업이 이번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시사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도 시장점점회의를 통해 대기업 가운데 우선 난관에 봉착한 항공업의 경영 현황을 살펴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들을 점검하고 있다며 항공산업 지원 계획을 밝혔다.

항공업계는 미국, 유럽과 같은 대규모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항공협회는 3일 "항공산업 생존을 위한 호소문"을 통해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매출 9000억원의 고정비가 적자로 쌓이면서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가 5조3000억원에 이른다"며 "항공사 임직원 모두가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의 사례를 들며 미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항공업계에 580억달러(74조원) 규모의 보조금 및 대출지원을 결정했으며 독일도 국적기 금융지원을 무한대로 설정하는 등 대대적 국가들이



항공산업 파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수만 명의 생계와 물류·수송을 책임지는 기간산업으로의 항공산업 중요성을 감안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각종 공항이용료 감면 조치의 경우 코로나19로 전체 운항대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

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올 3월부터 6월 사이 항공업계 피해액을 6조 3000억원으로 추산하며 "정부 지원대책은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며 "일부 방안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항공업계는 무담보 저리대출 확대, 회사채 발행에 대한 지급보증, 항공기 재산세 면제 등 세금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채 매입 지원 대상에 제외되면서 자금 위기가 커지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채권 지급보증과 만기 연장과 같은 정부의 후속대책이 없을 경우 버티기 힘들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의 구분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시끌

대학생 A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지면서 생계가 막막해졌다. A씨는 이에 정부가 주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상자에서 탈락했다. 어려운 사정으로 지역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부모의 피부양자로 편입돼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들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재난지원금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이같은 미비점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보료 기준 왜?...국민 97% 가입

정부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정한 데 대해 전 국민의 97%가 가입돼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재난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면서 생활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5107만1982명으로 의료보장 적용인구 5255만6653명의 97.2%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는 3698만9716명이며, 지역가입자는 1408만2266명이다. 하지만 이는 피부양자를 포함해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모든 국민을 포함한 수치로 실제 가입자는 직장보험은 1747만9465명이며 지역은 805만2557가구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 직장보험 피부양자는 가입자보다 훨씬 많은 1951만251명이며, 지역보험은 740만4179명이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다.

또 건강보험에는 외국인도 재외국민 등도 가입돼 있다. 외국인 직장보험 가입자는 23만734명으로 이중 실제 가입자는 18만716명이며 4만3018명이 피부양자로 편입돼 있다. 지역보험에 가입된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각각 695명, 7만710가구다.

◇따로 사는 대학생 자녀는 재난지원금 못받나?

건강보험이 97%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지만 맹점도 있다. A씨처럼 부모와 독립생활을 하며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지만 부모의 보험가입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재난지원금을 따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30대 실직자인 B씨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 직장을 잃어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였던 B씨는 최근 다니던 직장을 잃으면서 직장보험가입자인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두 가지 사례로 구분하면서 보험가입자와 다른 지역에 따로 사는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본다 고 발표했다. 반면 건보 가입자의 따로 사는 부모는 독립가구로 인정했다. 통상 결혼 후 부모를 모시지 않고 독립해서 생계를 꾸리기 때문에 부모 자식간은 기준을 달리 적용하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따로 살더라도 한 가구로 본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모와 따로 살지만 건보에 가입돼 있지 않고 피부양자로 돼 있는 대학생이나 실업자 등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 '인삼·김치·라면' 코로나 특수 누렸다...중국 등으로 수출 썩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삼과 김치, 라면의 해외 인기가 치솟으면서 우리나라가 올해 1분기 농산물 수출에서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분기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17억43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 수출액은 누적 기준으로 올해 1월말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했다가 2월 0.2% 증가한 뒤 3월 5.8%로 뛰어 올랐다. 3월 한달간만 따지면 6억7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다.

신선식품 부류는 2월까지 2.9% 떨어졌지만, 인삼과 김치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3월말에 이르러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로 전

환했다. 김치는 미국 수출 증가에 힘입어 올 1분기 3020만달러로 19% 성장했다. 인삼도 5230만달러로 5.9% 증가했다.

특히 인삼의 중국 수출액은 누적 기준으로 1월 290만달러(전년 동기 대비 48%↓) → 2월 850만달러(20.4%↓) → 3월 1900만달러(21.2%↑)를 기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2월부터 티끌·징등 온라인몰에서 관측을 추진했다"며 "3월에는 이동제한 완화로 따라 현지 바이어와 함께 긴급 관측을 추진한 결과, 우리 인삼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가공식품 부류도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14억15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

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 소비가 올 1분기 크게 늘었다. 올 1분기 기준 라면 수출액은 1억321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했다.

아울러 △쌀 가공식품 2840만달러(18.4%↑) △조제분유 2250만달러(14.1%↑) △소스류 6910만달러(21%↑) △우유 420만달러(4.3%↑) 등도 호실적을 냈다.

반면 식당에서 주로 소비되는 맥주와 소주 수출은 올 1분기 외식업 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했다. 맥주는 2260만달러(27.3%↓), 소주 2090만달러(Δ8.4%) 등이다.

중국·홍콩·대만 등 중화권 수출액은 누계 기준으로 1월말과 2월말 각각 12.2%, 5.7% 떨어졌다가

3월말 2% 증가로 전환했다.

미국에선 김치·라면·과자류의 수출 호조로 1월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누계 기준으로 1월말 10.9%, 2월말 25.6%, 3월말 33.1% 증가했다. 올 1분기 기준으로는 김치 470만달러(54.3%↑), 라면 1420만달러(20.4%↑), 과자류 2890만달러(26.8%↑) 등이다.

유럽연합(EU)과 아세안에서도 올 1분기 기준 각각 1억1050만달러(15.3%↑), 3억5210만달러(4.5%↑)를 기록했다.

반면 아랍에미리트(UAE)와 일본에선 각각 3590만달러(26.5%↓), 3303만달러(3.8%↓)로 수출이 감소했다.

신봉우 기자



홈플러스 코로나로 집콕, TV 저렴하게 구입해보세요 모델들이 5일 서울 등총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인텔 43형 Full HD TV를 소개하고 있다.

## 영세 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 '월 최대 7만원' 추가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보전해 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수준이 5인 미만 사업장 직원 1인당 월 최대 11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영세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 방안을 오는 6일부터 실시한다

고 지난 5일 밝혔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직원 1인당 1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그간 사업장이 휴업할 경우 단축된 직원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해 왔지만, 추후 제도 개편을 거쳐 연말까지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저임금노동자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유급 휴직·휴업을 독려하는 조치다.

## 마힌드라 자금지원 거부...생존기로 내몰린 쌍용차

쌍용자동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코로나19에 따른 여파를 감인해 쌍용차에 대한 신규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주주 자금 지원을 받은 삼아 회생을 도모했던 쌍용차 임장에서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마힌드라 그룹의 자동차 부문 계열사 마힌드라 & 마힌드라는 3일(현지시간) 특별이사회를 열고 쌍용차가 요청한 신규자본 투입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쌍용차 노사는 회사 회생을 위해 마힌드라에 향후 3년간 5000억원(4억6000만달러)의 자금 투입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마힌드라는 향후 현금 흐름을 고려할 때 쌍용차에 신규 자금 투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3개월간 최대 400억원의 일회성 특별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더라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마힌드라가 당초 계획과 달리 쌍용차에 대한 신규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 여파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규모 신규자금 투입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 **동행역량**

### 제 905 회차 당첨결과 2020년 4월 4일 추첨

3 4 16 27 38 40 + 20

순위	당첨개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7	3,017,862,536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77	45,725,190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 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643	1,332,138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29,133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2,111,090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익일 연일)